대상, '아누가 2025'서 K-푸드기업 존재감 각인

대상이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인 '아누가(ANUGA) 2025'에서 글로벌 무대 속 K-푸드 기업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대상은 지난 4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종가'와 '오푸드' 브랜드를 중심으로 K-푸드 부스를 운영했다. 회사는 일 최대 3000명, 총 1만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공영홈쇼핑, '공공언어 평가' 전체 1위 차지

공영홈쇼핑이 바른 우리말 쓰기를 실천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한 지난해 공공언어 평가에서 공영홈쇼핑은 대상 기관 중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린 '2025한글한마당 기념행사'에서 공영홈쇼핑 김영주 대표이사 직무대행(오른쪽)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오비맥주, 서울 잠실서 '건전음주 캠페인' 실시

오비맥주가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Global Beer Responsible Day)을 맞아 10월 한 달간 서울 잠실 일대에서 '건전음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비맥주 김병훈 영업 부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 부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서울 잠실 상권 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오비맥주

휴젤
캐리 스트롬 글로벌 CEO 영입

휴젤이 세계적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전문가 캐리 스트롬을 글로벌 최고경영책임자(CEO·사진)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휴젤의 글로벌 사업 전반을 이끌게 된 캐리 스트롬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글로벌 제약사 애브비에서 수석 부사장이자 엘러간 에스테틱스 글로벌 총괄사장을 역임했다. 2011년 엘러간(현재 애브비)에 처음 합류한 뒤 엘러간이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히알루론산 필러 '쥬비덤' 등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캐리 스트롬 신임 CEO 영입은 최근 장두현 한국 CEO 취임에 이은 것으로 휴젤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기획조사팀장 정진우

부음

▲권용옥씨 별세, 안덕규씨 부인상, 안종호·종훈씨 모친상, 원은자(TV조선 보도위원실)·채은영씨 시모상=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15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일산자연예술수목장. 02-2072-2091

㈜한화-나눔비타민, 인천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따듯한 한 끼 캠페인' 협약으로 2000만원 규모 식사쿠폰 제공

이영찬 ㈜한화 인사지원팀장(좌측 세번째)과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좌측 네번째) 및 관계자들이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한화는 기부 플랫폼 운영사 나눔비타민과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결식우려 아동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따듯한 한 끼 캠페인'은 가정 형편 등으로 끼니를 거르기 쉬운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약 2000만원 규모의 식사쿠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동들은 나눔비타민이 운영하는 복지 플랫폼 '나비얌'을 통해 다양한 제휴 매장에서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화는 임직원들이 직접 제휴 매장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응원 편지를 전달하는 '착한가게 응원 캠페인'을 병행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화 이영찬 인사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은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진, '창립 80주년' 글로벌 캠페인

전 세계 임직원 함께한 영상 공개
앞으로 100년 기업 도약 다짐 나눠

한진이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임직원이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한진이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임직원이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13일 한진에 따르면 이번 영상은 국내외 주요 거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 8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했다.

한진은 국내에 메가 허브를 비롯한 전국 택배워크, 인천·부산항 등 주요 항구에 항만 물류 거점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22개국 42개 지역에 종합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영상에는 유럽, 북미, 아시아를 포함한 국내외 거점 임직원들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참여해 'Better Future with Better Logistics(더 나은 물류로 더 나은 미래를)'라는 공통의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이번 글로벌 캠페인 영상은 숏폼(Short-form) 콘텐츠로 제작해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과 일반 시청자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진은 지난달 2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편'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거점 25곳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이번 영상 캠페인은 전세계 임직원이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80년 역사를 이어온 회사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안동 산불 피해목, APEC 가구로 변신

코아스, APEC 정상회의 협찬
프리미엄 가구에 피해목 적용

APEC 정상 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귀빈실에 제공될 친환경 프리미엄 가구(왼쪽)와 각국 정상들이 앉게 될 천연 대나무 소재로 제작한 '마룬(MARUON) 체어(오른쪽). /코아스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숲이 불탔던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목이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프리미엄 가구로 변신해 세계 정상들을 맞이한다.

APEC 정상회의 공식 가구 협찬사인 코아스는 약 90%가 소각 처리되는 산불 피해목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성공, 이달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협찬 프리미엄 가구에 최초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상 회의장과 정상 집무실, 귀빈 대기실 등 주요 공간에 친환경 프리미엄 가구 17종 등 총 142점(약 3억원 상당)을 협찬하며 전 세계 정상들이 머무는 공간을 '숲의 재탄생'으로 꾸민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앉게 될 정상용 의자 '마룬(MARUON) 체어'(사진)는 천연 대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바이오 가죽(BAM-P Leather)이 적용된 친환경 제품이다.

80% 이상 바이오 기반 소재로 만들어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동시에 인체에 무해하며 항균·탈취 기능까지 갖췄다.

해외 제품의 바이오 ECO 함유율이 30~5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 관련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1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공모전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반으로,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한국정책학회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논문은 한국정책학회의 1차 검토를 거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독창성, 연구 설계·방법 타당성, 논리성 등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심사 결과 우수 논문 5편을 선정해 수상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대상, 300만원) ▲소진공 이사장상(최우수상 2점, 각 200만원) ▲한국정책학회장상(우수상 2점, 각 1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공모전과 관련한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누리집이나 한국정책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민생 중심 경제 기조에 발맞춰 이번 공모전이 청년 세대의 창의적인 시각을 정책 현장에 접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태광 가을 음악회' 첫 무대 막 올라

흥국생명빌딩 로비서 진행

태광그룹이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로비에서 진행하는 '태광 가을 음악회 : Melody in the City'가 13일 예원학교 학생들의 피아노-바이올린 협주로 첫 무대를 열었다. /태광그룹

태광그룹은 13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로비에서 예원학교 학생들의 피아노·바이올린 협주로 '태광 가을 음악회' 첫 무대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연주자들로 구성된 예원학교 학생들은 파블로 데 사라사테, 세자르 프랑크,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실내악 명곡들을 연주했다. 예원학교는 정명훈, 손열음, 조성진, 임윤찬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명문이다. 태광그룹은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오는 23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음악회를 연다. 13~17일에는 점심시간인 낮 12시30분, 20~23일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10분에 열린다.

14일에는 성악가인 김은교 세화여중 교사가, 15일에는 태광그룹 임직원 공모를 거쳐 선발된 보컬·댄스 밴드 '태광 데몬 헌터스', 17일에는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 출신의 음악 전공 대학생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20~23일에는 한림예고(보컬·댄스), 지혜와 전자밴드(전자음악), 임채히 트리오(재즈), 가수 장예진(발라드)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공연 기간 유튜브 채널 구독 후 명함을 제출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